

보도시점 2024. 4. 28.(일) 08:00 배포 2024. 4. 26.(금) 18:00

일본 '골든윌크' 계기 관광객 눈높이로 서울 주요관광지 불편 사항 살핀다

- 4. 29. '관광서비스 상생 지원단'과 주한 일본인 누리소통망 기자단 20명, 관광 수용태세 점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올해 일본의 '골든윌크(4. 27.~5. 6.)' 동안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들에게 만족스러운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월 29일(월), 서울 시내 주요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 수용태세를 점검한다. 일본인들은 '골든윌크' 기간에 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한 바 있다.

일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성수동, 광장시장 등 집중 점검

특히 외국인 관광객 눈높이에 맞춰 '관광서비스 상생 지원단' 소속 국내 대학생들과 주한 일본인 누리소통망(SNS) 기자단 '칸타비 서포터즈' 20명이 짝을 이뤄 점검 활동을 펼친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 성수동, 광장시장 등을 둘러보며 안내 체계, 편의시설,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불편 사항을 살필 계획이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국내 관광지 현장의 서비스 품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지난 2월, 100여 명 규모의 '관광서비스 상생 지원단'을 발족했다. 지원단 발대식 당일(2. 27.), 장미란 제2차관은 단원들과 함께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일대를 점검한 바 있다.

주한 일본인 35명으로 이루어진 '칸타비 서포터즈'는 일본 여행객에게 실시간으로 양질의 관광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누리소통망 기사단이다. 이번 점검에 참여하는 타나카 레이나 씨는 “한국의 대표 관광지들을 외국인의 입장에서 직접 다녀보고 확인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활동이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들이 보다 즐겁고 만족스러운 여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점검 결과, 지자체와 관련 부처에 공유해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에 활용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번 점검 결과를 연중 진행하는 ‘관광 서비스 상생 지원단’의 점검 결과와 함께 지자체, 관련 부처에 공유해 국내 관광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 국장은 “주한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점검 활동이 관광 서비스 공급자들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광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광업계와 지속 협업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책임자	과장	강지은 (044-203-2811)
		담당자	사무관	박재순 (044-203-2809)

